

남녀 고등학생의 가출충동 원인

김은주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auses of Runaway Impulse by Gender in High School Students

Kim, Eun-Ju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Purpose: In an attempt to investigate causes of runaway impulse in male and female students with runaway impulse experience in high schools, this study was carried out. **Methods:** The subjects were 195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and Incheon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questionnaires. **Results:** To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main causes of runaway impulse were 'conflicts with parents', 'interference and excessive expectations of parents' and 'burden of study and grades'. In cases of youth with runaway experience by runaway impulse, the major causes of runaway impulse were 'want to have fun with friends' and 'conflicts with parents'. Also shelter and economic difficulties were obstacles that prevent a runaway despite runaway impulse to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But in female, the fear and anxiety about runaway were higher barriers than those of male. **Conclusion:** From the above results, major causes of runaway impulses wer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burden of study. And barriers to prevent a runaway were shelter, economic difficulties to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Key Words: Runaway behavior, Impulse, Cause, Adolesc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정신·도덕·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 독립,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흔히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키며,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강한 가출충동과 가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Adams, Overholser, & Spirito, 1994).

가출충동이란 가출행동을 유발하는 심리내적인 충동을 의미한다(Nam & Lee, 2009). 즉, 가출충동은 자기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충동성 혹은 가족 내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집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가출충동수준은 가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다(Kim, 2009).

청소년들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가출충동을 경험하게 된다.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6)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56.7%, 위기청소년의 80.1%가 가출충동 경험이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50.1%가 가출경험이 있었다. Yeon과 Min (2004) 연구에서도 가출을 경험한 고등학생들 중 72.7%가 가출 전에 적어도 1번 이상 가출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

가출충동은 가출의 선행요건이며 가출을 결정하기 전 각 개인의 심리내적인 정서작용이기 때문에 가출의 원인과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가출의 원인과 구별하여 가출충동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어: 가출, 충동, 원인, 청소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Eun-Ju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un, Seosan 356-706, Korea
Tel: +82-41-660-1074 Fax: +82-41-660-1087 E-mail: eunjkim@hanseo.ac.kr

투고일: 2011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7일

서 가출충동을 잘 설명하고 있는 상당수의 독립변인들이 실제로 가출과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거나(Park & Hwang, 2010) 서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Oh, 2010).

가출충동이 아닌 가출의 원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즉,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 가출과 관련이 있으며 크게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성별(Kang, 2003; Oh, 2010), 자아개념(Robertson, 1992; Nam & Lee, 2009), 비행 또는 문제행동의 지속적인 경험(Oh, 2010) 등이 있으며, 가정요인으로는 가정환경(Robertson, 1992; Whitbeck, Hoyt, & Ackley, 1997), 가정내 신체적 학대(Choi, 2000; Park & Hwang,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Adams et al., 1994; Chang, 1999), 부모와의 유대관계(Oh, 2010; Park & Hwang, 2010), 학교요인으로 부정적인 교사-학생관계(Oh, 2010), 체벌(Jung & Mun, 2008), 학업성적(Jung & Mun, 2008; Oh, 2010), 비행친구 유무(Adams et al., 1994; Voydanoff & Donnelly, 1999; Nam & Lee,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가출충동 원인을 다룬 연구는 미진하여 일부 논문에서 가출과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즉, Park과 Hwang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감독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변인은 청소년들의 가출 여부에 직접적인 역할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유대, 부모학대, 친구유대 및 긴장요인 등은 가출충동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가출에 이르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모 감독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출의 선행요건인 가출충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유대, 부모학대, 친구유대 및 긴장요인 등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여 가출충동과 실제 가출경험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가출 위험요인을 가진 가출고위험군 청소년 중에서도 어떤 청소년은 가출을 하고 어떤 청소년은 가출을 하지 않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출이 행동화되기 이전에 가출충동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 선별해 내야 하며, 개별적인 가출충동의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내적인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개입 및 예방서비스가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출의 원인이나 영향변수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충동에 대한 원인이나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가출충동은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여 실제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가출충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원인분석을 한 논문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인문계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의 원인과 실제 가출 경험률 및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을 억제하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예방하고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인문계 남녀고등학생을 195명을 대상으로 남녀별 가출충동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충동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제 가출 경험률을 파악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가출충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 가출경험 유무에 따른 가출충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넷째,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다.

다섯째,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사항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일부 지역 남녀별 고등학생의 가출충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인천 지역의 인문계 남녀고등학교 3개교와 여자고등학교 1개교, 총 4개교의 가출충동의 경험이 있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211명이었으며 이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19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3. 연구 도구

1) 가출충동 원인

가출충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원인에 관한 7개 문항, 가정과 관련된 원인에 관한 8개 문항, 학교와 관련된 원인에 관한 9개 문항을 제시하여 대상자의 가출충동 원인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답하도록 하는 다중응답방식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Kim (2009)이 가출청소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 즉 서울 YMCA (1996)의 청소년 가출실태 설문지와 Kim (1999)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3가지 요인, 즉 개인·가족·학교를 범주화하

여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하지 않는 원인과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용
기가 없어서' 등 8개 답지를 제시하여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또한 가출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을 파악하기 위해 '먹고 씻고 잠잘 곳' 등 6개 답지를 제시하여 주된
어려움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문항은 Lim (2008)과 Kim
(2009)의 가출청소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윤리적인 고
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중응답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3명들이 조사대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
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
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으며 서면동의를 구한 후 연
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성별·가출경험
유무별 가출충동 원인은 다중응답 교차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영
역별 가출충동의 주된 이유는 χ^2 -test,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
지 않은 이유,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Fisher's
exact test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이 82명(42.1%), 여학생 113명(57.9%)이었으
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106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
가 10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으며,
월 가구 소득은 200-299만원이 69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300-
399만 원, 400만 원 이상의 순이었다.

가출충동 관련특성을 보면, 지금까지 경험한 가출충동 횟수는
2-3회 정도가 82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이상 경험한 경우

도 43명(22.0%)이었다. 또한 가출충동 경험자 중에서 실제 가출 경
험이 있는 남학생은 82명 중 15명으로 18.3%, 여학생은 113명 중 17
명으로 15.0%이었다(Table 1).

2. 가출충동 원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 원인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 원인의 3순위 안에 속하는 주요 원인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가 15.5%, 8.8%, '공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11.9%, 11.7%,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가 11.6%, 12.9%이었다. 그 중 남학생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
에'가, 여학생은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가 가출충동
원인의 1순위이었다. 그 외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냥 이유 없
이 답답할 때'가 9.7%, 8.0%, '학교나 공부가 싫어서'가 7.7%, 7.5%, '그
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7.7%, 6.1%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는 4.2%,
8.3%, '독립하고 싶어서'는 1.9%, 3.6%, '집이 싫어서'는 3.5%, 7.8%, '왕따
문제(따돌림, 소외감)'는 0%, 2.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개인적 문제(충동적, 인내심 부족 등)' 때문에는 5.8%, 2.4%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Table 2).

실제로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가출충동 원인을 보면,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가 13.1%, '부
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가 12.3%, '공부, 성적에 대한 부
담감'이 10.7%로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부모와의 갈등과 공부에 대

Table 1. General & Runaway Impulse's Characteristics (N = 195)

Characteristic	Category	N (%)		
General	Sex	Male	82 (42.1)	
		Female	113 (57.9)	
	Grade	1	23 (11.8)	
		2	106 (54.4)	
		3	66 (33.8)	
	Religion	None	104 (53.3)	
		Protestant	58 (29.7)	
		Catholicism	20 (10.3)	
		Buddhism	13 (6.7)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 100	4 (2.0)	
100-199		28 (14.4)		
200-299		69 (35.4)		
300-399		56 (28.7)		
400 ≤		38 (19.5)		
Runaway Impulse		No. of runaway impulse	1	70 (35.9)
	2-3		82 (42.1)	
	4 ≤		43 (22.0)	
	Runaway experience		Male	Yes
		No	67 (81.7)	
		Female	Yes	17 (15.0)
	No	96 (85.0)		

Table 2. Causes of Runaway Impulse by Sex (Multiple Response)

Domain	Causes of runaway impulse	sex		
		Male (%)	Female (%)	
Personal	Momentary impulse & curiosity	10 (3.2)	19 (4.6)	
	Want to be self-reliant	6 (1.9)	15 (3.6)	
	Want to live freely	13 (4.2)	34 (8.3)	
	Afraid of scolding after a bad thing	0 (0.0)	1 (0.2)	
	Ment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20 (6.5)	17 (4.1)	
	Personal problems (impulsivity, lack of patience, etc.)	18 (5.8)	10 (2.4)	
	Frustrating for no reason	30 (9.7)	33 (8.0)	
	Subtotal	97 (31.3)	129 (31.4)	
	Home	Dislike home	11 (3.5)	32 (7.8)
		Parental violence, abuse	2 (0.6)	1 (0.2)
Parental indifference, discrimination		2 (0.6)	8 (1.9)	
Conflicts with parents		48 (15.5)	36 (8.8)	
Interference and excessive expectations of parents		36 (11.6)	53 (12.9)	
Parents' frequent fight		11 (3.5)	13 (3.2)	
Parents' divorce, remarriage		1 (0.3)	2 (0.5)	
Financial difficulties at home		2 (0.6)	6 (1.5)	
Subtotal		113 (36.5)	151 (36.7)	
School		Dislike school and study	24 (7.7)	31 (7.5)
	Burden of study and grades	37 (11.9)	48 (11.7)	
	Overly strict school discipline and control	3 (1.0)	5 (1.2)	
	Discrimination and punishment of school teachers	3 (1.0)	2 (0.5)	
	Conflicts with teachers	3 (1.0)	4 (1.0)	
	Bullying issues	0 (0.0)	9 (2.2)	
	Victims of school violence	0 (0.0)	1 (0.2)	
	Friends' runaway temptation and encourage	6 (1.9)	6 (1.5)	
	Want to have fun with friends	24 (7.7)	25 (6.1)	
	Subtotal	100 (32.2)	131 (31.9)	
Total	310 (100.0)	411 (100.0)		

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가출 충동 원인의 1순위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와 놀고 싶은 가출충동은 실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원인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15.315, p = 0.03$).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30.5%, 30.1%로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0.5%, 16.8%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으며, '용기가 없어서'는 8.5%, 17.7%, '가출 후 상황이 두려워서'는 8.5%, 17.7%, '학교 결석이 걱정이 되어서'는 1.2%, 5.3%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았다(Table 4).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14.546, p = 0.02$).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먹고 씻고 잠잘 곳'이 35.4%, 52.2%, '경제적 어려움'이 47.6%, 31.0%로 가출 시의 주된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이었으나, 남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여학생은 '먹고 씻고

Table 3. Causes of Runaway Impulse by Runaway Impulse's Experience (Multiple Response)

Domain	Causes of runaway impulse	Runaway impulse's experience		
		No (%)	Yes (%)	
Personal	Momentary impulse & curiosity	26 (4.3)	3 (2.5)	
	Want to be self-reliant	17 (2.8)	4 (3.3)	
	Want to live freely	37 (6.2)	10 (8.2)	
	Afraid of scolding after a bad thing	0 (0.0)	1 (0.8)	
	Ment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29 (4.8)	8 (6.6)	
	Personal problems(impulsivity, lack of patience, etc.)	24 (4.0)	4 (3.3)	
	Frustrating for no reason	58 (9.7)	5 (4.1)	
	Subtotal	191 (31.9)	35 (28.7)	
	Home	Dislike home	36 (6.0)	7 (5.7)
		Parental violence, abuse	3 (0.5)	0 (0.0)
Parental indifference, discrimination		9 (1.5)	1 (0.8)	
Conflicts with parents		68 (11.4)	16 (13.1)	
Interference and excessive expectations of parents		74 (12.4)	15 (12.3)	
Parents' frequent fight		21 (3.5)	3 (2.5)	
Parents' divorce, remarriage		2 (0.3)	1 (0.8)	
Financial difficulties at home		7 (1.2)	1 (0.8)	
Subtotal		220 (36.7)	44 (36.1)	
School		Dislike school and study	45 (7.5)	10 (8.2)
	Burden of study and grades	72 (12.0)	13 (10.7)	
	Overly strict school discipline and control	8 (1.3)	0 (0.0)	
	Discrimination and punishment of school teachers	4 (0.7)	1 (0.8)	
	Conflicts with teachers	7 (1.2)	0 (0.0)	
	Bullying issues	6 (1.0)	3 (2.5)	
	Victims of school violence	1 (0.2)	0 (0.0)	
	Friends' runaway temptation and encourage	12 (2.0)	0 (0.0)	
	Want to have fun with friends	33 (5.5)	16 (13.1)	
	Subtotal	188 (31.4)	43 (35.2)	
Total		122 (100.0)		

Table 4. Causes of Not Runaway Despite Runaway Impulse by Sex

(N = 195)

Causes / Sex	Male (%)	Female (%)	χ^2*	p
A lack of courage	7 (8.5)	20 (17.7)	15.32	0.03
Because of the degree to bearable	9 (11.0)	8 (7.1)		
No shelter	25 (30.5)	34 (30.1)		
No money	25 (30.5)	19 (16.8)		
Afraid of situation after runaway	7 (8.5)	20 (17.7)		
Because of disappointed and worried parents	4 (4.9)	5 (4.4)		
A concern about absence from school	1 (1.2)	6 (5.3)		
Fear of social prejudice on runaway youth	4 (4.9)	1 (0.9)		

*Fisher's exact test.

잠잘 곳'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로움, 불안 등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는 남학생 4.9%, 여학생 8.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5. The Biggest Difficulty for Runaway Subjects Assumed by Sex
(N = 195)

Difficulty / Sex	Male (%)	Female (%)	χ^2*	p
Problems of sleeping, eating and washing	29 (35.4)	59 (52.2)	14.55	0.02
Economic hardship	39 (47.6)	35 (31.0)		
Loneliness, anxiety, mental problems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4 (4.9)	10 (8.9)		
To do something not to want (hazardous environments, flight experience, prostitution, etc.)	5 (6.1)	3 (2.7)		
Worsen conflict with parents	5 (6.1)	2 (1.8)		
Will not go home	0 (0.0)	4 (3.5)		

*Fisher's exact test.

논 의

Oh (2010)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출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은 초등학생 21.9%, 중학생 46.4%, 고등학생 51.6%이었다.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정도의 학생이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중 가출 경험자는 12.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중 가출 경험자가 18.3%, 여학생은 15.0%이었다. 선행연구에 비해 가출 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가출경험자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험비율이 높은 것은 Oh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이었다. Chang (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님이 이유를 듣지 않고 무작정 야단부터 칠 때' 가출충동을 느낀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가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및 갈등이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이 있으며(Chung & Ann, 2001; Bae & Jeon, 2002; Kang, 2003; Park, 2006), 가족의 지지는 가출충동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간섭과 같은 부모의 감독은 부정적인 위협요인이라 하여(Oh, 2010)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부, 성적에 대한 부담감' 또한 남녀학생 모두에게 가출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었다. Choi (2000)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성적만족, 학교규칙준수, 학교동일시, 교우관계 등 학교와 관련된 요인 중에서 학교성적만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Chung과 Ann (2001), Kim과 Kim (2008), Oh (2010)도 학교성적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가열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제도하에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입시에 따른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과 무관할 수 없어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이 가장 큰 스트레스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의 가출충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에 대해서도 부모의 권위적인 감독보다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등 관심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냥 이유 없이 답답할 때', '학교나 공부가 싫어서',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를 가출충동의 원인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의 가출은 일반적으로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불량 친구들과 어울림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시대적 특징은 유복한 가정환경과 자녀 수의 감소, 자녀중심의 가정교육, 사교육의 증가와 학업성적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또 다른 형태의 청소년 가출이 발생된 시기이다(Lim, 2008).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등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구로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최근 동향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출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37.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이지 않아(Lim, 2008), 가출에 대한 인식이 점점 관대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할 수 있는 또는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을 경우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는 청소년의 시각이 만연하여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내의 신체적 학대가 청소년들의 가출충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Choi, 2000; Park & Hwang, 2010; Oh, 2010),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의 원인으로 부모의 폭력과 학대라고 답한 경우가 남학생 0.5%, 여학생은 0%로 거의 가출충동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중 실제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가출충동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특이한 점은 부모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1순위라는 점이다. 이는 친구와 놀고 싶어서 발생하는 가출충동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단 이로 인한 가출충동이 생기면 실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출경험 친구의 유무(Lee, Kim, Kim, & Chung, 2006; Kim & Kim, 2008), 비행친구와의 접촉 여부(Park, 2008; Park & Hwang, 2010)가 가출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다른 변인을 중재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와 '돈이 없어서'가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먹고 씹

고 잠잘 곳'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이었다. 즉, 거처와 경제적인 요인은 남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가출 여부의 갈등 순간에 가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여학생은 이외에도 '용기가 없어서', '가출 후 상황이 두려워서'도 가출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가출 시 어려움으로 '외로움, 불안 등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아, 여학생의 경우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가출에 대한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남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출충동의 원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집이 싫어서', '왕따 문제'는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부모의 감독이나 학교의 억압에서 벗어나 간섭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욱 동경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 (2009)의 연구에서도 우울, 불안,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내재화 등 총 문제행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가출충동의 주요한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즉, 성적에 대한 부담과 부모님의 부담스러운 기대감 등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서 가출충동이 커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친구와 놀고 싶어서 생긴 가출충동은 실제 가출경험으로도 이행되기 쉬우므로 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가출 후 거처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소극적인 태도가 강해 이는 여학생에게는 주요한 가출에 대한 장애요인이었다.

청소년 가출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출의 선행요건인 가출충동의 원인은 청소년 가출예방 대책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자료이다. 가출충동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를 참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부모와 청소년 자신에서부터 풀어간다면 청소년 가출충동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었고, 편의추출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출충동의 원인 및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시행하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출충

동 경험자와 가출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출충동의 원인과 실제 가출의 원인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출충동과 가출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의 원인, 실제 가출 경험률 등을 파악함으로써 가출충동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기·인천 지역의 4개 고등학교에서 가출충동 경험이 있었던 자를 연구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를 통해 총 19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응답 교차분석, χ^2 -test 및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충동을 경험한 고등학생 중 실제로 가출을 경험했던 남학생은 18.3%, 여학생은 12.1%이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순위 안에 속하는 가출충동의 주요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 '공부,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로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에 관한 문제이었다. 그 외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냥 이유 없이 답답할 때', '학교나 공부가 싫어서',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를 가출충동의 원인으로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가출충동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이 선택한 항목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집이 싫어서', '왕따 문제'이었으며, '개인적 문제(충동적, 인내심 부족 등) 때문에'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많았다.

셋째, 실제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가출충동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와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1순위가었으며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 '공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의 순이었다.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와 놀고 싶은 가출충동은 실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원인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가출 후 상황이 두려워서', '학교 결석이 걱정이 되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소극적인 태도가 강했다.

다섯째,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먹고 씹

고 잠잘 곳', '경제적 어려움'을, 가출 시 주된 어려움으로 생각하였으나, 남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여학생은 '먹고 씻고 잠잘 곳'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로움, 불안 등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가출충동의 주요한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또한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가출 후 거처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소극적인 태도가 강해 이는 여학생에게는 가출에 대한 주요한 장애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출이 행동화 되기 이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을 중재요인으로 가출충동의 예방이나 관리를 위한 적절한 개입 및 예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Adams, D. M., Overholser, J. C., & Spirito, A. (199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39(1), 43-48.
- Bae, M. J., & Jeon, G. Y. (2002). A study 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olescents' runaway drive - focusing on personal, familial, school and peer variables-.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2), 23-35.
- Chang, H. K. (1999). *A study on runaway and runaway impulse in you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Daejeon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Daejeon.
- Choi, E. S. (2000). *A study on the juveniles' impulse to runaway from home & their runaway behavior- focused on factors in individuals, home abuse and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ung, H. K., & Ann, O. H. (2001). Predicting factors on youth runaway impul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7(4), 483-493.
- Jung, K. E., & Mun, S. H. (2008). A critical analysis on youth runaway researches in Korea.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1), 219-241.
- Kang, S. R. (2003).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a runaway juveni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Kim, I. H. (2009).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n a community.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34(2), 234-243.
- Kim, J. A. (2009). *Efficacy of runaway prevention program for high-risk runaway group i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 on reinforcement of protectiv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S., & Kim, H. A. (200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s of runaway youths and the runaway impuls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1), 73-94.
- Kim, M. J. (199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females' habitual runaw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H., Kim, K. H., Kim, H. Y., & Chung, H. K. (2006).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girls' runaway experience. *Korea Research of Youth*, 13, 161-179.
- Lim, B. S. (2008). *A study on the prevention measures for runaway of juvenile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 Nam, M. K., & Lee, K. N. (2009).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runaway impuls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7(4), 41-54.
-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6). *Youth white paper*. National Youth Commission, Seoul, Korea.
- Oh, S. H. (2010). The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youth runaway - focus on the runaway impulse and runaway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301-324.
- Park, J. S., & Hwang, S. H. (2010). A study on mediating effects of runaway impulse influencing adolescents' runaway. *Korea Research of Youth*, 17(10), 1-21.
- Park, M. S. (2006). Potential risk of run away behavior in adolescents. *Korea Research of Youth*, 13(1), 85-106.
- Park, M. S. (2008). Estimating changes in numbers of youth runaways and delinquent peers : tests of systematic relationships between two factors using 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2), 111-139.
- Robertson, J. M. (1992). *Homeless and runaway youth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Robertson, New York.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 328-349.
- Whitbeck, L. B., Hoyt, D. R., & Ackley K. A. (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 and later victimization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 375-392.
- Yeon, S. J., & Min, S. S. (2004). *Preventing delinquency among runaway youth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oul.
- YMCA (1996). *A report for runaway youth*. Seoul YMCA Youth Counseling Center, Seoul.